

공장장님! 그 SI를 써보세요

산업현장의 기술 격차를 넘어,
사람과 SI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10팀 / 잘산단말이야

배규진 · 김문영 · 김영열 · 남향은 · 전상욱 · 김동영
FT 김동호 · VW 김혜진



페르소나 — 김정관 (29세)

기본 정보

이름: 김정관

나이: 29세

직업: 지방 산업단지 생산직 근로자

근속: 5년째 동일 반복 작업 수행 중

거주: 지방 중소도시

정관님의 하루

매일 아침 7시, 공장에 출근합니다. 5년째 같은 라인에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처음엔 익숙해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 반복 작업 5년 경력
- AI·자동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름
-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음

"산단에서 일하는 29세, 김정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나름 가장 젊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산단 밖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말합니다.

"요즘 시로 뭐 하는 거 있다던데, 그거 좀 알아봐."

그래서 교육도 찾아보고,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AI를 쓰면 좋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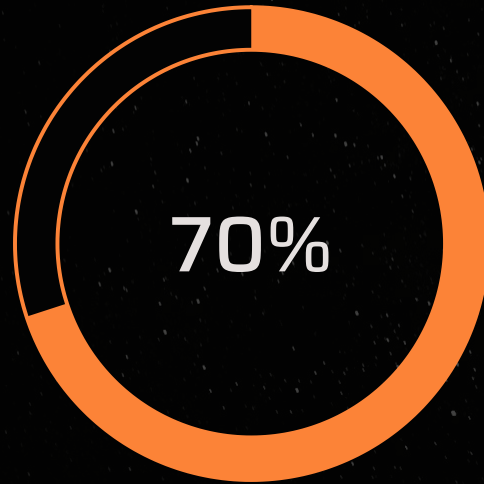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특정 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조업, 물류, 생산 현장 어디서든 AI는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자동화 중심의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자동화 위협

반복 작업 직무의 자동화 대체 가능성



전환 시점

대부분의 산업현장 AI 도입 예상 시기



그런데 산업단지의 현실은 어떨까요?

화려한 AI 담론 뒤에 가려진 산업단지의 실제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관리 구조

70~80년대 방식의 위계적 관리 구조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 현황

2000년대 초반 설비가 현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신 AI 시스템과의 연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력 구성

젊은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운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술 전수와 소통의 장벽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AX와 AI는 아직 먼 이야기

산업단지의 현실

70~80년대 관리 방식, 2000년대 초반 설비, 젊은 외국인 근로자 중심 운영이 공존하는 복잡한 생태계. 이 안에서 디지털 전환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 노후 설비와 신기술의 충돌
- 세대 간 기술 단절
- 언어·문화 장벽

왜 AI 도입이 어려운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AI 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습니다.

- 기술 활용 역량 부재
- 교육 인프라 미비
- 변화에 대한 두려움

문제의 본질

문제는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연결하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점입니다.

AI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자동화 설비도 시장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현장의 근로자가 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연결 구조**가 없습니다.

기술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술 존재

AI·자동화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음



연결 부재

기술과 현장 사람을 잇는 구조 없음



활용 불가

현장 근로자는 기술을 배울 기회조차 없음

그래서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산업현장에 AI가 도입되어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안이 아닙니다.

전국 수십만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시대적 공포입니다.

아이디어 도입 — 기술은 자산이다

과거의 기술과 미래의 기술을 연결하다

현재 산업현장의 숙련공 기술은 오랜 시간 축적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반 산업 기술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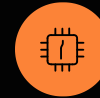
과거의 기술

숙련공의 현장 노하우, 수십 년간 축적된 암묵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연결 구조

기술공유 플랫폼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를 만듭니다.



미래의 기술

AI 기반 설비 운영, 스마트 팩토리.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기술공유플랫폼

"기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해야 한다"

기술을 배우고,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 – 기술공유플랫폼입니다. 기존의 기술을 배우고, 미래의 AI 기술까지 함께 익힐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안하는 해답입니다.



배우다

숙련공의 현장 노하우와 AI 기반 기술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구조



나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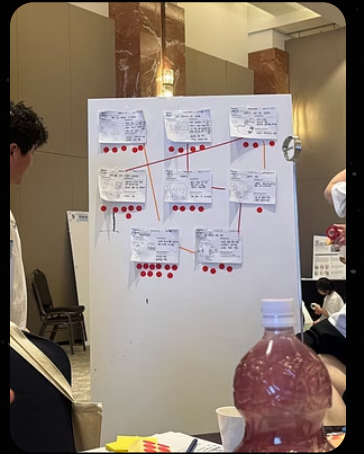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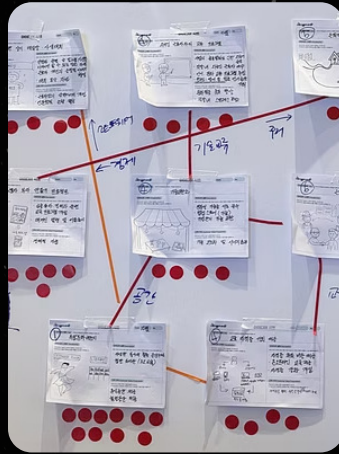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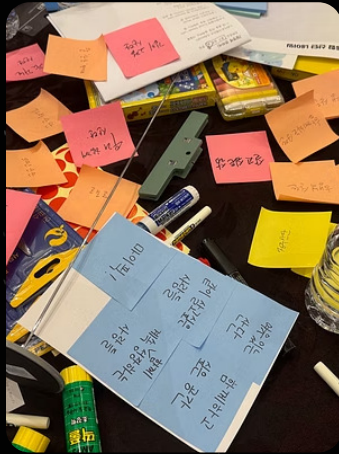
경험과 지식을 등록하고 공유하며, 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플랫폼



성장하다

단순 작업자에서 AI 설비 운영 인력으로, 지속적인 커리어 성장 경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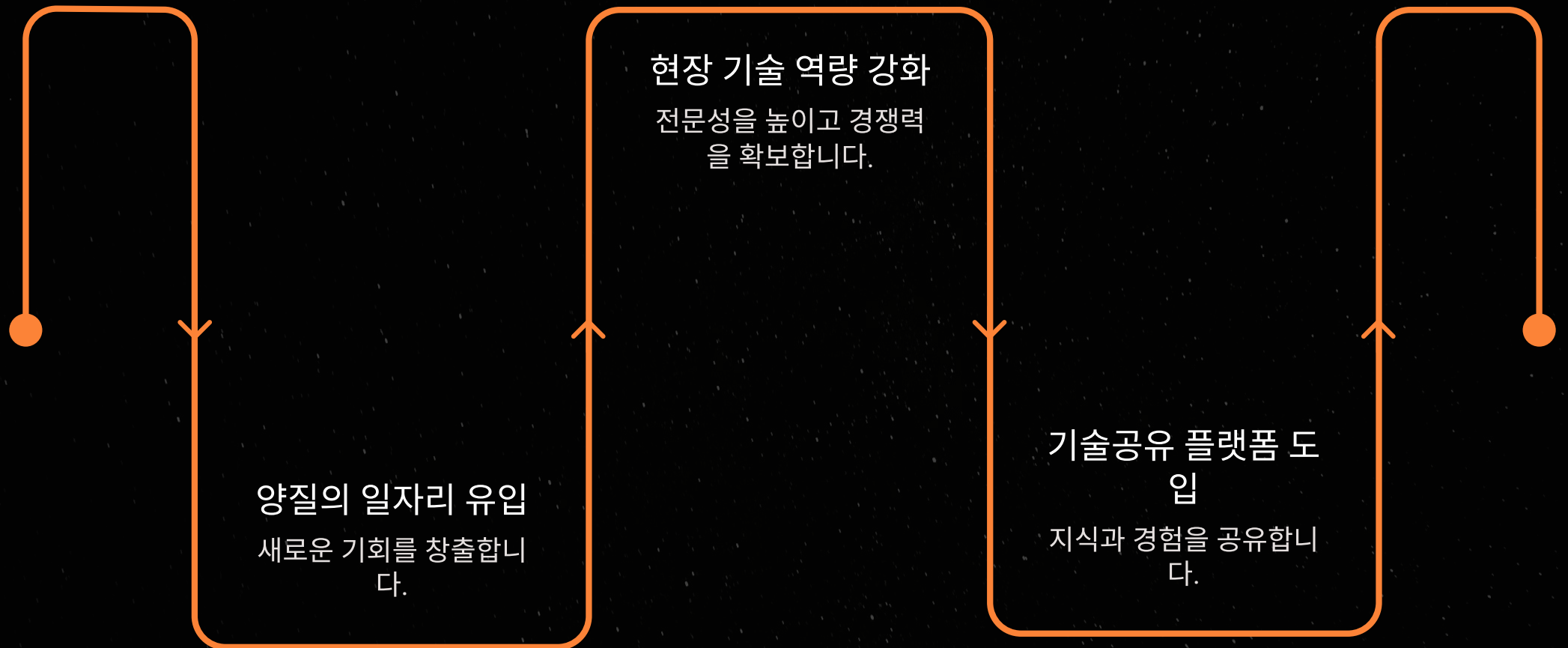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봤습니다.



□ 현장 근로자, 지역 주민, 회사 담당자 등 우리 "잘산단말이야" 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했습니다.

기술이 흐르면, 좋은 일자리가 따라온다

"기술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기술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이 사람에게 흐를 때, 그 사람이 머무르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술공유플랫폼을 제안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Before - 불안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사라지는 거 아닐까?"

청년 정관님은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에 자동화 설비와 AI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복의 함정

5년간 같은 작업만 반복. 기술이 쌓이지 않는다는 느낌.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무력감.

AI의 공포

자동화 설비 도입 소식.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구체적인 정보도, 대안도 없음.

출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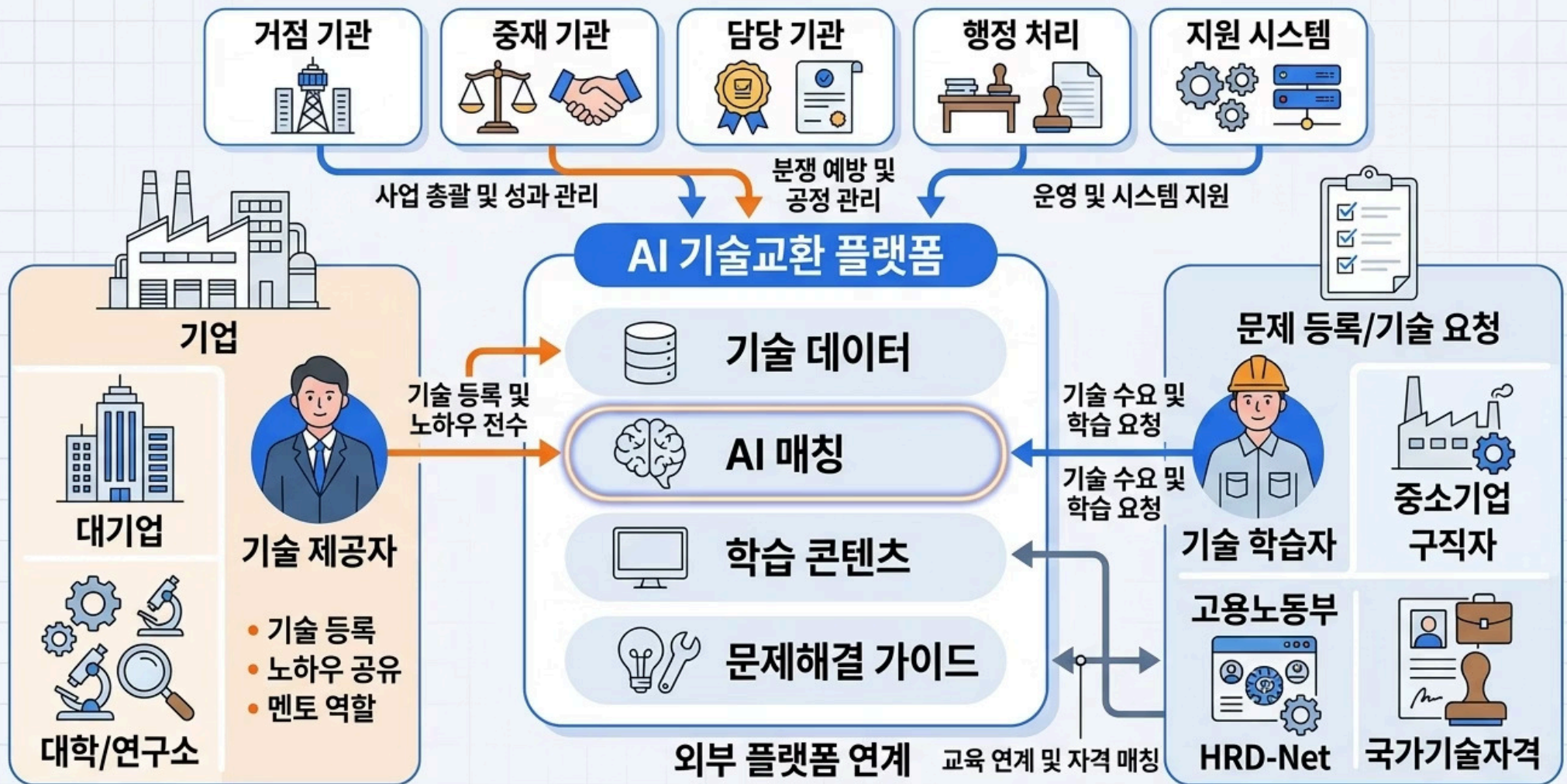
어디서 배워야 할지 모름. 교육 정보 접근 어려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립감.

기술교환플랫폼을 만나다

어느 날, 산업단지 내 '기술교환플랫폼'을 알게 됩니다.

정관님은 자신의 작업 경험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AI 추천을 통해 '설비 자동화 기초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AI 기술교환 플랫폼 거버넌스 구조도



After - 변화



정관님은 단순 작업자가 아니라 AI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제는 공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술 역량

AI 설비 운영 능력 보유. 단순 반복에서 기술 기반 직무로 전환 완료.

💡 문제 해결

공정 개선 아이디어 제안 가능. 현장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

🤝 지식 공유

자신의 성장 경험을 플랫폼에 등록. 이제는 후배 근로자의 멘토가 됩니다.

"AI가 들어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 김정관님, 기술교환플랫폼과 만난 후 -

정관님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술공유플랫폼을 통해 성장한 그는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력 자산화

반복 작업 경험이 플랫폼에서 가치 있는 기술 자산으로 전환



자신감 회복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



성장 가능성

더 나은 직무,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불안 →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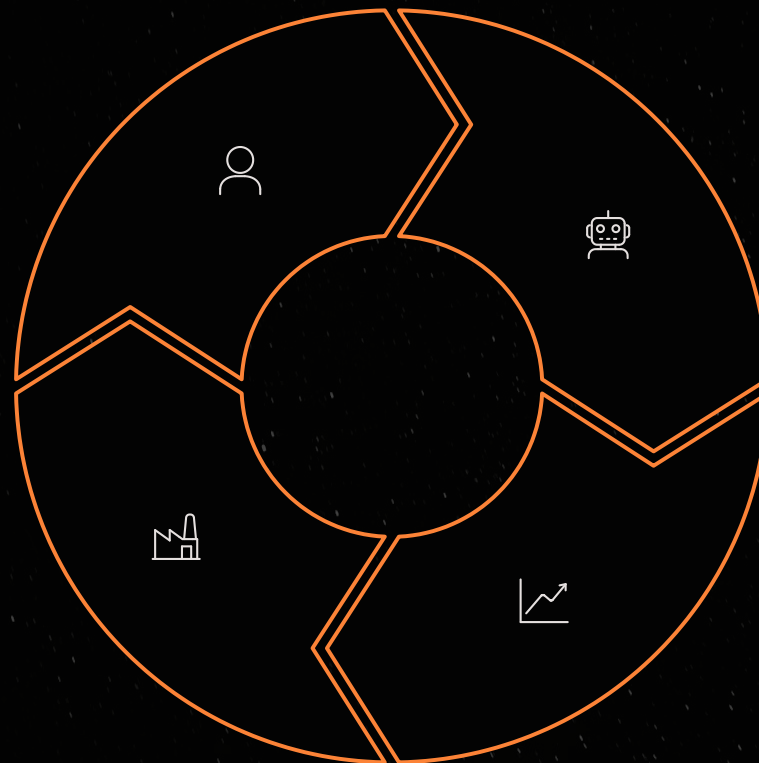
기술교환 플랫폼은 불안한 근로자를 성장하는 인재로 바꾸는 구조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술이 흐르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숙련공의 노하우가 청년에게 전달되고, 청년은 AI 기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 선순환이 바로 기술교환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숙련공 기술 등록
현장 노하우를 플랫폼에 공유

기업 혁신 실현
현장 개선 아이디어 창출



AI 매칭 & 추천
최적의 교육과 멘토를 연결

청년 역량 성장
기술 습득 후 현장 적용

기술이 흐르면 사람이 남고, 지역이 살아난다



기술공유플랫폼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돕는 것을 넘어, 기업의 혁신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기술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지역이 살아납니다.

기술이 머무르면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머물면 지역이 성장합니다.



사람

기술을 가진 인재는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장 기회가 있는 곳에 머물습니다.



기업

기술 인재가 있는 지역에 기업이 투자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지역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 기술공유플랫폼 하나가 개인, 기업, 지역 모두를 살리는 구조적 해법이 됩니다.

청년 김정관님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AI가 들어와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다."

정관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수십만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술공유플랫폼은 그들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드립니다.

1

오늘

불안한 반복 작업자

2

3개월 후

기술교환소 등록 & 교육 시작

3

6개월 후

AI 설비 운영 자격 취득

4

1년 후

기술 인재로 성장, 지역에서 미래를 만들다



AI 시각도 병행

그림 통해 위치

공장장님, 그 AI를 써보세요

기술이 흐르면
사람이 남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기술공유플랫폼 – 과거의 기술과 미래의 AI를 연결하는 다리

감사합니다

기술교환플랫폼 프로젝트

산업단지 AX 전환

청년 근로자 성장 플랫폼